

| 애국선열 |

김창숙(金昌淑)



호는 심산(心山)이며, 경상북도 성주에서 태어나 어려서 유학을 배웠다. 1905년 스승 이승희와 함께 을사오적 매국 성토 상소를 올렸고, 1910년 향리에 사립성명학교를 창립하였다. 3·1운동 직후 137인의 전국 유림 대표들이 서명한 독립청원서(파리장서)를 갖고 상하이로 건너가 파리 만국평화회의에 우송했다. 그 후 그 곳에서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임시의정원 의원이 되어 임시정부의 단합에 노력하는 한편 중국 국민당 인사들과 교제하여 한국독립후원회와 중한호조회(中韓互助會)를 만들게 했다. 1925년 국내로 들어와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금했고,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자 1926년 압록강을 건너 상하이로 되돌아갔다.

선생은 김구(金九)·이동녕·유자명(柳子明) 등 독립운동 지도자들에게 국내의 정세를 설명하면서, “인심이 이미 죽었으니 만약 비상수단을 써서 진작시키지 않으면 우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 또

한 장차 돌아갈 곳이 없어 궁박하게 됨을 면치 못할 것이요. 청년 결사대들에게 자금을 주어 무기를 가지고 국내에 들어가 왜정기관을 파괴하고 친일 부호를 박멸하여 한번 국민의 의기를 고취시켜 봅시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김구와 유자명은 적극 동조하면서 행동대원으로 의열단원인 나석주(羅錫疇)를 추천하였다. 선생은 국내에서 가져온 자금을 유자명에게 주어 폭탄과 권총 등 무기를 구입하게 한 뒤, 천진에서 나석주를 만나 이를 전해주면서 국내에 잠입하여 거사를 단행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나석주는 중국인으로 가장하여 서울에 잠입하여 식민수탈기관인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투탄하고, 권총을 발사하였다. 일본인 3명이 사살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그 자신은 마지막 남은 한 발의 탄환으로 자결, 산화했다.

한편, 선생은 임시의정원 부의장에 당선되었다가 1927년 상하이에서 붙잡혀 국내로 압송되어 14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은 끝에 앓은뱅이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벽옹(壁翁)’이라는 새로운 호를 얻게 된다.

광복 이후 선생은 환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무위원, 비상국민회의 최고 민중지도자, 민주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싸우고, 반탁 민주운동에 헌신하였다. 그의 통일염원과 반독재의 참뜻은 다음의 시구에 잘 드러나 있다.

“북의 김일성, 남의 이승만, 죽을 적에 통일의 평화를 기약하리. 문노니 제국의 앞잡이여, 붉은 사냥개여, 백성을 속이고 나라를 엮어서 무엇하려 하느뇨.”

1946년에는 전국 유림을 결속시켜 유도회총본부(儒道會總本部)를 조직하면서 그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아울러 같은 해 선생은 성균관대학(成均館大學)을 재건하여 학장·총장을 역임하면서 유학의 근대적 발전과 후진양성에 이바지하다가 1962년 5월 10일 서울 중앙의료원에서 84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였다.



심산 김창숙 선생 가족들과 함께



백범 김구 선생과 심산 김창숙 선생



2016 7*8

통권 88호

독립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 04** 권두언_
한반도 평화 체제를 모색한다
| 이부영

- 07** 특집 _
‘희생자 코스프레’로 끝나버린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 이승환



- 11** 친일파와 그 후손들(10)_
거물 친일파 후손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기대한다
| 최광웅



- 16**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영상 콘텐츠로 독립정신을 알린다
| 김대은

- 22** 청년독립군이 간다! _ (3)
주피터 프로젝트와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
| 성희연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용, 박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 26**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일제의 요시찰 맹렬 여성 '주세죽'
| 이윤옥

- 28** 영화읽기
영화 <동주>,
식민지 시대와 청년 그리고 시
| 이두희

- 32** 임정서가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냉전 이후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 편집부

- 42** 독립정신 이모저모



■ 권두언

한반도 평화 체제를 모색한다



이 부 영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사업회 회장
전 국회의원

2016년 초 4차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와 SLBM실험은 북한의 핵전력자산이 위험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한반도 위기의 심화는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가시화되는 속도에 비례해왔다. 어쩌면 북핵의 해결을 향한 결정적 고비에 가까워졌는지 모른다.

북한은 무슨 의도로 이처럼 대대적 군사적 위력을 보였는가. 7차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지도체제를 확고하게 세우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충격을 가해서 자신들의 의도하는 성과를 거두려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북한 핵전력의 고도화를 전략적으로 방치한 오바마 행정부를 미국 대선의 심판대에 내세워 미국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자는 것이 아닐까. 북한의 의도하는 바가 부분적으로 현실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동시협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대니얼 러셀 동아태국무차관보가

있따라 조건이 충족되면 평화협정 협상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제임스 클래퍼 미 정보국장이 이례적으로 5월초 한국을 방문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연계하는 6자회담이 재개될 경우, 한국정부의 의사는 어떤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20여 년 동안 6자회담과 북-미 협상이 지속하면서 성명과 합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번번이 파기됐고 북한에 대한 제재와 봉쇄가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제재와 봉쇄가 계속되었지만 기대했던 북한의 붕괴는 일어나지 않았고 북핵의 비축과 고도화는 쉬지 않고 진전됐다.

제재와 봉쇄가 북핵의 고도화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가로 스스로 선포할 만큼 자신감을 내세우고 있다. 북한은 6자회담의 재개 조건으로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할 경우, 지금까지 자신들이 축적한 기술과 그 성과를 완전히 없던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두 차례 비핵화 협상 조건(1994/11~2002/12, 2007/7~2009/4)을 받아들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들이 파기되는 경험을 한 뒤에는 북한의 '선 비핵화 거부'와 미국의 '협상거부' 사태(2010/12 이후)가 지속되고 있다.

비핵화를 조건으로 협상이 진행됐을 때에는 북핵의 고도화가 저지되고 있었던 반면에 협상이 중단되고 제재와 봉쇄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기술고도화를 수반하면서 진척되었음이 지난 20년의 경과에서 드러났다.

“이제부터라도 외교다운 외교를 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 붕괴론의 환상에서 깨어나 북한의 구미를 당길 만한 카드를 갖고 평양과 워싱턴이 대타협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북-미 관계정상화를 북한의 핵 포기와 맞바꾸는 ‘큰 흥정’(그랜드바겐)을 추구하되 일단 북한의 핵 활동을 동결하고 협상하는 동안에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중앙일보 2016/1/26) 이와 같은 포괄적인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한국은 대립과 위기의 강경국면을 주도하도록 역할이 주어졌다가 대화-협상 국면으로 전환 할 경우, ‘나 홀로 강경’으로 남아있는 처지가 반복되어 왔다. 대화-협상 국면이 한국의 국익에 불리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단-대결의 단역배우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 북핵폐기와 평화협정을 대타협하는 국면이 올 경우, 한반도에 화해와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주역(올 라운드 플레이어)이 될 각오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2005년 9.19성명을 도출할 당시 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설득했던 적극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그런 한국의 자세를 코리아 프로세스라고 부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코리아 프로세스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봤다.

단기적으로는 1) 남북대화를 복원한다, 2) 개성공단의 재가동과 금강산관광의 재개를 신속히 성사시킨다, 3) 남북이산가족의 상봉, 서신교환을 재개, 확대한다, 4) 6.15, 10.4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한다, 5) 이미 합의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을 신속히 이행한다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1) 서울과 평양에 남북대표부를 설치한다, 2) 미국과 일본의 대북관계 정상화를 적극 지지한다, 3) 북핵 폐기 및 평화협정과 연계하여 한미동맹을 재조정한다, 4) 북한-러시아 당국과 시베리아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의 연결사업을 논의하는 한편 사할린 가스파이프라인의 한국 연결을 논의한다, 5) 중국-러시아의 산둥 가스파이프라인의 한국 연결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평화통일-외교안보정책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필자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한 코리아 프로세스 정책은 북한에게 체제안전보장과 경제협력에 대한 한국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코리아 프로세스는 북한이 포위된 농성국가로부터 동아시아의 개방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하는데 제기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북한의 전환은 북한 자신 뿐 아니라 한국, 더 나아가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도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다.

코리아 프로세스는 한계와 위기에 부딪친 한국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고 일본의 국가동력을 부분적으로 다시 평화 쪽으로 돌려세우는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코리아 프로세스가 한반도를 갈등과 대결의 중심으로부터 동아시아 평화변영의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을 주도해갈 한국인들 속에서 이 과제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합의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코리아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의 목표는 동아시아에 국가협력기구가 발족되는 데 있다. 6자회담이 동아시아국가협력기구로 발전하는 데는 짧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시아국가협력기구의 발족을 촉진시키는 순수한 민간기구인 동아시아평화회의가 지난 2년 동안 논의되어왔고 2015년 8월 동아시아평화 국제회의에서 하토야마 일본 전 총리가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 민간기구가 2016년 하반기에 발족하기를 기대해 본다. 

■ 특집 ■

‘희생자 코스프레’로 끝나버린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



이 승 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간 까닭은

지난 5월 27일 오바마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최초의 원폭 투하장소인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였다. 사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을 앞두고 한국의 주요 언론들은 이미 많은 우려와 함께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다.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일본이 피해자란 인상을 줌으로써 아직 반성과 사과가 끝나지 않은 아시아의 가해국이란 사실을 가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북아는 역사가 곧 국제 정치 이슈가 되는 특수한 지역이다. 그런 동북아의 역사적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내딛는 오바마의 한 걸음은 오히려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강인선,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가면 안 되는 이유,” 〈조선일보〉 2016년 4월 16일자)

특집 _

“일본 총리가 중국 난징기념관과 한국 독립기념관을 들러 ‘정의의 평화’를 호소할 때라야,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하노이의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수 있을 때라야 미군 최고사령관은 히로시마를 갈 수 있다. 지금은 아니다.”(김진현, “오바마는 ‘전’ 대통령으로서 히로시마를 들르라,” <중앙일보> 2016년 4월 18일자)

그러나 이런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 없는 세계’를 내세워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일이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평화공원을 방문하여 핵무기에 의해 처참하게 희생당한 “100,000여 명의 일본인 희생자들과 수천 명의 한국인, 그리고 수감되었던 수십 명의 미국인들”을 애도하였다.

역사적인 히로시마 연설에서 오바마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도시의 중심에 발을 딛고 서서, 우리들은 원자 폭탄이 폭발한 순간을 그려보아야만 합니다. 엄청난 광경에 놀라 낮이 나갔을 어린이들의 공포를 그려보아야만 합니다. (...) 말과 목소리만으로는 그들의 고통을 감히 그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이러한 진실들을 직시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래에 그러한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자문해 봐야 합니다. 언젠가 히바쿠샤(피폭자)들의 목소리가 끊겨 들리지 않게 되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라며 ‘핵 없는 세계’에 대한 그의 비전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는 미국의 공화당과 참전용사 등 미국내 여론을 의식하여 핵무기 사용에 대해 ‘사과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사실 이는 매우 모순된 것이 아닐 수 없다. 한국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반대 분위기와 달리 한국의 시민사회가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침묵했던 것은 ‘원폭 투하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사과’를 기대했기 때문이었다. 핵무기 사용에 대한 사과는 누가 뭐라 하던 자국의 이해관계와 감정을 넘어서는 ‘인류 진보’의 핵심적인 문제이며, ‘평화를 향한 인류의 역사적인 전진’이다. 그러기에 오바마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사과는 일본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사과이자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진정한 출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세계적 지도자가 원폭의 최초 투하지인 히로시마를 방문하여 과거 핵무기 사용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고, 일본의 아베정부가 요구하는 ‘희생자 코스프레’만 하다온 것은 전혀 오바마답지 않은 것이었다.

“역사의 진실들을 직시해야 하는 책임”

또한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역사의 진실들을 직시해야 하는 책임”에 대해서도 반쯤



은 눈을 감은 것이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원폭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함께 오히려 그보다 더 강조해야 했던 것은, 원폭 희생자들에 대한 그의 추모가 대량살상무기의 무고한 피해자들인 일본 국민들에 대한 것이지 ‘전쟁범죄자들인 일제 군국주의자들’에게까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었다. 즉 일본은 전쟁범죄국가이며, 오바마의 원폭 희생자에 대한 추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 일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어야 했던 것이다.

원폭 희생자에 대한 추모 이전에, 오바마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의 하나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아직 ‘진정성 있는 사죄’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진행되는 역사와 영토논란을 한·일 혹은 중·일 사이의 비이성적인 감정싸움 정도로 생각하는 뿌리 깊은 냉소를 지니고 있다. 이런 냉소적 경향은 미국이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를 시작하면서 사실상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부추기고 일본의 과거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본질적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이 진정한 사죄를 하지 않고 있다는 한국과 아시아인들의 주장을 미국은 여전히 ‘자기들끼리의 감정싸움’ 정도로 치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대통령은 히로시마 방문과 원폭 사용에 대한 사과와 함께, 과거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한반도와 중국 등 아시아와 미국, 그리고 일본 국민들에게 저지른 참혹한 전쟁범죄에 대해 사죄할 것을 일본 정부에 명확히 요구해야 했다. 일본 정부의 사죄는 무엇보다 전쟁범죄와 식민지배 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책임 있는 배상, 그리고 전쟁범죄와 식민지배를 미화·은폐하는 과거사 왜곡 행위의 중단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사죄라 할 수 있다.

원폭 사용에 대한 사과도 없고, 또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에 대한 청산 요구도 없는 오바마의 히로시마 방문은 결국 일본 아베정부가 원하는 최상의 ‘희생자 코스프레’가 되고 말았다. 이번 히로시마 방문으로 일본 아베정부는 평화헌법 개정의 최대 고비가 될 7월 참의원선거에 큰 지원을 받은 셈이고, ‘희생자 코스프레’를 통해 전범국의 이미지보다는 오히려 희생자로서 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유리한 토대를 다지게 되었다. 그래서 오바마의 이번 히로시마 방문은 그의 ‘핵 없는 세계’ 비전만이 아니라, 진주만 참극, 남경대학살, 일본군위안부의 비극 등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따르는 참혹한 희생과 피해를 값싼 미일군사동맹 추진을 위해 팔아치운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집 _

‘핵 없는 세계’ 비전과 한반도의 핵위기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미국의 지도자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은 ‘핵 대 핵’ ‘선제 타격 대 선제타격’의 심각한 국면으로 들어서 있는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이다.

이 핵전쟁의 위기는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강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한반도의 군사위기도 일방이 아니라 ‘위협의 상호작용’에 의해 전쟁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는 점 역시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외면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그리고 한국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연례적인 방어훈련으로서 북한이 이를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변명해왔다. 그러나 미국은 2010년 이래 공세적인 핵무기 전진배치와 비례대응 태세를 점차 강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는 ‘맞춤형 억지전략’과 ‘포괄적 미사일방어 전략’ 등의 이름으로 사실상 대북 핵 선제공격을 교리화해왔다. 그리고 급기야 올해는 대북 핵선제공격과 ‘김정은참수작전’을 공공연하게 추진하고 있다.

‘핵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지도자가 핵무기 전진배치와 핵 선제공격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일이다. 이런 핵 선제타격의 위협은 북한 비핵화 요구의 명분을 약화시키게 되고, 북한의 핵 무장 논리와 의지도 더욱 강화시킬 것이 분명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핵 없는 세계’의 비전은 당연히 동아시아 정세를 불안정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는 북한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중요한 전기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적 압박과 핵무기 전진배치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실현해나갈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는 7차 당대회 이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를 계속 긴장시키고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그럴수록 오바마의 결단은 앞당겨져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와 이란 등 다른 지역에서 평화와 협력을 진작시킨 역사적 업적에 이어 동아시아에서도 ‘협력과 공존’에 기초한 평화 정착의 물꼬를 트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군사동맹의 확장을 위해 ‘핵 없는 세계’의 비전을 값싸게 써먹었다는 비난을 받게 될지는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 있다. 

■ 친일파와 그 후손들(10) _

거물 친일파 후손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기대한다



최 광 응
데이팅정치연구소장

광복절 70주년 5일 앞둔 지난해 8월 10일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부평을)이 SNS에 자신의 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부역자들의 명부인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친일행위자라고 글을 올렸다.

수많은 네티즌들은 그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으며 보수언론조차도 반응이 뜨거웠다. 그렇지만 이를 후 홍 의원이 활동하는 인천지역에서 짝막한 성명 하나가 발표됐다. 풀뿌리 지역시민운동 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홍영표 의원의 용기 있는 자기고백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2016년 총선 불출마선언을 포함한 공직생활 자세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 길이 홍 의원의 자기고백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10) _

필자는 홍영표 의원의 사과문을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다. 언뜻 보면 구구절절한 사죄의 글처럼 보였다. 부친이 조부의 친일행적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광복 후 낙향해서 평생을 교육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자신은 '단 한 번도 일제의 만행을 옹호하지 않았고 일본의 현대사 왜곡과 제국주의 부활에 동조하지도 않았으며, 조부로부터 그 어떤 자산 물림이나 부의 혜택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렇지만 그 사죄의 글에는 거슬리는 점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다. 우선 조부의 친일행적을 10년여 전 참여정부에서 일할 때 처음 알았다는 대목이다. 부친이 그렇게 조부의 친일행적에 대해 속죄하며 살았다면, 왜 조부의 친일행적에 대해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서울법대에 재학하며 법조인의 꿈을 키우던 20대 젊은이가 어느 날 시골로 낙향해 후학을 가르치면서 속죄의 삶을 살 정도의 양심적인 인물이라면, 마땅히 자식들에게 부친의 부끄러운 행적을 솔직하게 알려주고 근신하도록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을까?

한편 홍영표 의원의 백부(伯父)인 홍순희는 1913년생으로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전북 고창산업조합장, 전북 인사처장 서리 등을 지냈다. 고창(을) 선거구에서 1950년 2대 총선부터 1960년 5대 총선까지 연거푸 출마했다. 부친의 든든한 재력을 바탕으로 무모한 3번의 무소속 도전을 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러나 1958년 4대 총선 때는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돼 2년짜리 금배지를 달았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부분이 있다. 홍영표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그의 부친은 20대의 나이에 스스로 낙향해 평생 관직 근처는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백부는 37세부터 10년간 뻘뻘스럽게도 친일파 부친의 고향 땅에서 감히 주민의 대표자를 맡겠다고 4번씩이나 공직선거에 나선 셈이다. 결국 친일파의 큰 아들이 국회의원에 나서는데, 부친의 친일행적을 속죄하며 낙향했다는 그의 고결한 동생이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다?

하지만 홍 의원의 고백을 보면, 그는 조부에 대해 '어린 시절부터 그 때까지 저는 제 조부가 몰락했지만 한 때 나날 줄도 알던 넉넉한 지주였고, 고창고등보통학교 설립에 참여한 교육자'로 알았을 뿐, 중추원 참의까지 지낸 거물 친일파였다는 것은 몰랐던 걸로 되어 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이다. 홍 의원이 조부의 친일행적을 그 이전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그 하나다. 그게 아니라면, 홍 의원 아버지가 속죄의 삶을 살았다는 주

장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홍영표 의원의 말은 사실이 아닐 경우가 크다.

홍 의원의 조부는 홍종철(창씨개명 洪海鍾轍)이다. 일제강점기 조상의 유산을 기반으로 1937년 당시 370여 정보의 땅을 소유한 고창의 거부였다. 전라북도 도회의원(4회)을 거쳐 1930년부터 3년간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 주임관 대우 참의에 이름을 올렸다. 중추원 참의는 당시 조선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였다. 그가 중추원에 재임하던 1931년~1935년 사이 민병석(경술국적 중 1인), 최린(3·1운동 참가 후 변절자) 등 단 78명의 핵심 친일분자들만이 명단이 들어있다. 1941년 9월 전시 최대의 민간 전쟁협력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이 결성될 때는 전라북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거액의 '현금과 현물' 등을 기부해 일본정부로부터 다이쇼 천황과 쇼와 천황 즉위기념 훈장을 받았다. 1944년부터 고창군 부안면장으로 재직하면서는 무리한 공출과 선산의 목재를 군용으로 별채하여 주민들의 많은 원성을 샀다. 패전 후에는 본국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에게 자신의 집을 숙소로 제공하는 등 뺏속까지 친일파였다. 그래서 그는 1949년 8월 반민특위에 체포되어 한 달간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랬던 그를 과연 고향인 고창 사람들은 친일파가 아니라 독립운동가를 양성한 교육자로 기억해주고 있었을까?

홍종철은 조선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의 비밀 요원으로 알려진 '마스도미 야스자에몬'이 고창고등보통학교를 건립할 당시 거금 16,000원을 기부하였고, 이사로 재임하면서 많은 기부금과 전답을 희사했다. 광복 직후 한성여중에 5천만평을 기부하여 재정 부담을 덜어준 교육자이기도 했다.

홍영표 의원의 고백과 달리 홍종철은 이미 국민의정부 당시인 2002년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이 발표한 친일파 708인 명단의 중추원 부문에 포함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명단의 중추원 부문, 2009년 대통령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의 중추원 부문에도 모두 포함되었다.

10년여 전 조부의 친일사실을 알았다는 홍영표 의원은 부친처럼 은둔하며 속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 통합민주당 공천으로 인천부평(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고, 이듬해 보궐선거 때 당선되면서 정치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10) _

홍영표 의원의 조부가 중추원 참의를 지낸 거물 친일파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2년 총선 당시였다. 상대방 후보가 이 사실을 폭로했던 것이다. 그러자 홍 의원 측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다섯 번이나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것이 조부의 친일행위를 평생 속죄하면서 산 교육자의 아들이 취할 행동인가는 의문이다. 그것이 ‘부끄러움을 아는 후손’, ‘용서를 구하는 후손’으로서 할 행동이었는가? 그는 왜 그때, 2015년 8·15에 발표한 것 같은 ‘감동적’인 사과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을까?

지난해 8월 일부 언론에서는 홍영표 의원에게 대해 ‘용기 있는 고백’ 운운하면서, 홍 의원 띄우기에 나섰다. 하지만 여기서 한 번 홍 의원에게 물어보고 싶다. 상대 후보가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나왔어도, 홍 의원은 자신의 조부가 거물 친일파였다고 ‘용기 있게’ 사과하고 나왔을까?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단체는 지난 해 홍영표 의원의 SNS사과 이틀 뒤 논평을 내고 “비록 늦었지만 사회지도층의 친일파 후손은 홍 의원처럼 용기 있는 결단으로 역사 앞에 반성하길 바란다.”면서도 “홍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공직생활을 자제하는 것이 자기고백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5일 후 인천시청 기자회견에서 “시골의 땅 부자였던 조부는 교육 사업을 통해 독립운동을 양성한 인물이지만 딱 한 번 친일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총선에도 출마하겠다고 불출마를 거부했다. 그렇다. 홍영표 의원의 진심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 버렸다. ‘없는 사람들과도 나눌 줄 아는 넉넉한 지주, 고창고보를 설립한 교육자’로 어린 시절 존경하던 조부가 일제에 의해 ‘딱 한 번’ (불가피하게) 중추원 참의 작위를 받고 부역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친일파라고 인정한 것은 아닐까?

홍종철은 1973년 사망한다. 홍영표 의원이 17세, 이미 철이 들 무렵이었다. 이때 고향 사람들은 교육자 홍종철이 사망했다고 아쉬워했을까, 아니면 친일파 홍종철이 사망했다고 평가했을까? 당시 청년 홍영표라면 그 정도 사리분별은 할 줄 아는 나이였을 것이다.

2015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뉴스타파>가 친일파 후손들 기획물을 제작, 보도했다. <뉴스타파>가 조사한 친일파 후손은 당시 1,177명. 이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 기업 대표와 임원이 전체의 약 30%(376명)를 차지했고, 이어서 대학교수(191명)·의사(41명)·언론인

(46명) 순이었다. 이어서 정치인이 31명이라고 밝혔으나 그 명단은 공개하지는 않았다.

홍영표 의원은 2016년 4월 13일 20대 총선 때 또 다시 당선됨으로써 3선의원이 되었다. 두 달 뒤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선출되는 영광까지 누렸다. 이제 중진 의원의 반열에 오른 그가 지난해 SNS에서 밝힌 것처럼 “조부의 행적을 원망하지만 조국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8·15를 맞이하여 정식으로 진정성 있는 사죄를 했으면 참 좋겠다. 헌법에서는 연좌제가 사라졌지만 적어도 친일파 조상을 옹호하는 정치인이 의정단상에서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니까. 

■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영상 콘텐츠로 독립정신을 알린다

- 이원혁 항일영상역사재단 이사장을 만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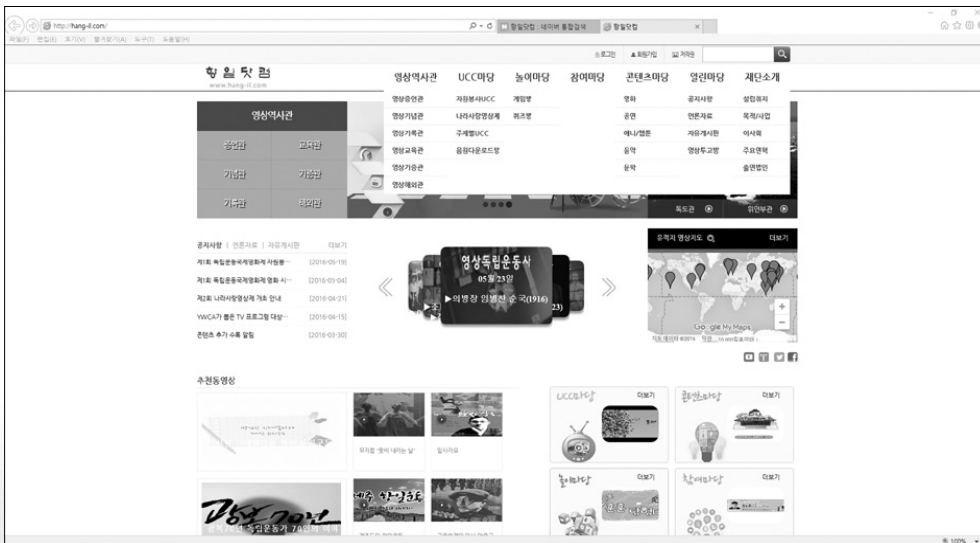
김 대 은
공주대 대학원 석사과정
제10기 독립정신답사단

맑고 화창한 5월에, 항일영상역사재단이 있는 마포구 대흥동의 건물에서 이원혁 이사장님을 만났다. 전화통화로 약속을 잡고 방문했던 건물 입구에는 작은 간판 2개가 있었고 각각 ‘항일영상역사재단’과 ‘TV유니온’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항일영상역사재단이 있는 3층에 올라가 이사장님을 만났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진행하였다. 처음 해보는 인터뷰이고,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주제는 어떤 것을 잡을 것인가?’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이사장님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인터뷰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재단설립을 했던 목적이나 이유, 그리고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으며, 향후 어떤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지에 대해 여쭙보았다. 또한 이사장님의 이력이나 수상경력에 대해 이야기를 했으며, 대표적인 작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EBS 다큐프라임 『여성독립운동사』 3부작이 YWAC 좋은프로그램 대상 시상식에서 연설하는 이원혁 이사장

우선 항일영상역사재단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여쭙보았다. 이사장님은 항일영상역사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에 관한 국내외 영상콘텐츠를 수집하거나 직접 제작한다고 했으며, 이렇게 모인 영상콘텐츠는 약 1200여개로 ‘항일닷컴(<http://hang-il.com/>)’을 통해 제공된다고 했다.



항일닷컴(<http://hang-il.com/>) 홈페이지

대표적인 영상으로는 생존 애국지사나 독립운동가 후손, 징병, 징용, 위안부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증언하는 기록영상과 국, 내외 독립운동 유적지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지도에 표시해 놓은 유적지 동영상지도가 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만든 UCC 영상과, 국내외 독립운동 관련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게시되어 있다.

“항일닷컴에는 1200여개의 영상콘텐츠가 있어요. 직접 제작한 것이 약 250건 정도 되는데, 그 중 증언기록으로 제작한 것이 100여건, 국내의 유적지 동영상이 약 150개가 있어요. 내년까지 100군데 추가로 제작하게 되면 국내 최초로 독립운동 유적지 동영상 지도가 완성될 계획입니다.”

재단설립에 대한 계기나 이유를 여쭙보니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셨다. 첫 번째로 해외 취재 중에 겪었던 역사기록에 대한 보존 및 관리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꼈다는 점, 두 번째로 30여 년간의 방송 관련 경력을 살려 보람 있는 일을 해보고자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영상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었다.



의열단원 이태준이 활동한 몽골 옛 왕궁 앞에서 현지 촬영 팀과 찍은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원혁 이사장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해외에 많이 나가요. 거기서 본 기록에 대한 보관과 관리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프랑스나 영국에 가면 국립문서보관소가 있는데, 이곳에 있는 문서들은 철저히 보존되고 관리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국립문서보관소에서는 우리 임시 정부를 사찰하는 프랑스 경찰의 기록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기록에는 누가 언제 무엇을 했

는지에 대해 날짜별은 물론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내가 1983년 KBS에 PD로 입사했고, 1996년 퇴사를 하고 그 이후로는 ‘TV유니온’이라는 방송제작사를 운영해오고 있어요. 방송입문 30년째인 2013년에 뭔가 보람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끝에,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어요.”

재단 설립과 홈페이지 운영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서는 이사장님은 다양한 계층, 특히 청소년계층을 중심으로 독립정신의 고취와 올바른 역사관의 정립을 목적으로 두고 있었다. 특히 이사장님은 역사에서 확증편향(Conformation bias)을 크게 경계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봐야 하는 역사를 이데올로기와 확증편향으로 인해 자기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보려는 태도는 올바른 역사를 훼손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하셨다.

“본래 역사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봐야 하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경향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확증편향이 발생하여 사실적인 역사는 왜곡이 되요. 게다가 최근 나라의 상황을 보면 구한말보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외부적으로는 여전히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남북분단 상황 속에 이념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내부분열로 대표적인 것이 ‘건국절’ 논란이에요. 이런 편향적이고 내부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확고한 역사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요.”

이사장님은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3가지를 제시하셨다. 첫 번째는 방송 다큐멘터리이며, 두 번째는 영화, 마지막으로 웹 모바일 콘텐츠다.

우선 ‘시대정신’과 ‘팩트’에 입각한 방송 다큐멘터리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구현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사장님은 최근 5년 동안 약 40편의 독립운동과 근현대사 방송 다큐멘터리를 기획 및 제작해왔다.

또한 이사장님은 할리우드 영화를 사례로 들면서 영화가 주는 의미와 효과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사장님은 “일본의 반성 없이는 동북아의 평화가 없다.”라고 언급하시며, 일제의 만행을 소재로 한 영화를 제작하여, 일본에 대한 국제여론의 환기는 물론,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그러면서 ‘카이로 회담’을 소재로 한 영화제작을 언급하셨다. 카이로 회담은 강대국들에 의해 한국의 독립이 약속되었으며, 이 회담에서 임시정

독립정신으로 사는 사람

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이사장님은 ‘카이로 회담’ 영화가 ‘건국절’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하셨다. 또한 이사장님은 영화를 통한 독립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1회 독립운동국제영화제’를 준비하고 있었다. 제1회 독립운동영화제는 올해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되며, 국내외 독립 관련 영화를 상영하고, 세미나를 개최하며, 또한 독립운동영화 시놉시스 공모전도 예정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언급하신 것은 웹 모바일 콘텐츠였다. 웹 모바일 콘텐츠는 3분 형태의 독립운동 및 애국지사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SNS나 혹은 유튜브와 같은 비디오 사이트를 통해 홍보하는 것이다. 이사장님은 이런 모바일 콘텐츠가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방식이며, 기존의 오프라인 기념관의 한계를 보완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 감동을 주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이를 영상콘텐츠로 집대성한 애국지사 영상기념관 건립사업은 김구기념사업회, 윤봉길기념사업회 등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9월경에 오픈될 예정이라고 이야기했다.

인터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이사장님의 활동에서 보람을 느꼈던 점에 대해 질문을 드렸다. 이사장님은 이런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지고, 독립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셨고, 또한 숨겨져 있던 독립 운동가를 직접 발굴하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하셨다. 예로 이사장님이 2009년도에 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지원을 받아 KBS에서 제작, 방영한 외국인 독립운동가 다큐멘터리를 예로 말씀하셨다.

“내가 외국인 독립운동가 다큐를 제작하면서 2명을 알게 되었는데, 영국인 조지 쇼우(George L. Shaw)와 루이 마랭이란 사람이었어요. 우선 조지 쇼우는 영국인으로 단둥에서 선박회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임시정부 교통국을 자신의 회사에 설립해 상해의 임시정부와 연결하게 했어요. 또 광복군 무기도 운송해 주고……. 행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는 ‘얼굴 없는 테러리스트’라고 불렸어요. 그 후 정부에서 건국훈장을 전달하려는데, 그 후 손을 못 찾아서 국내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큐를 만들면서, 행적을 밝혀내어, 증손녀를 찾게 되었고, 정부는 2012년 8월 15일 50년 만에 그 증손녀에게 훈장을 전달했어요. 또 한사람 루이 마랭은 프랑스 사람인데, 그 당시 국회의원을 지냈어요. 그는 상해 프랑스 총영사관을 통해 임시정부를 일본으로부터 보호한 인물이에요. 방송 다큐를 통해 이 분이 알려지게 되서, 작년에 건국훈장을 받게 되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사장님의 부친이 독립운동가로 일본유학시절 독서회사건에 연루되어 3년을 복역한 일과, 이사장님의 약력 및 수상경력 등에 대한

내용이었다. 대표적으로 1997년 KBS 일요스페셜 『731부대는 살아있다』 2부작으로는 한국 방송 대상과, 방송위원회 대상을 비롯해 작년 8월 15일에 방영한 EBS 다큐프라임 『여성독립운동사』 3부작으로 YWCA 좋은 프로그램 대상과 양성평등미디어상을 수상하는 등 이사장님은 독립운동을 위주로 한 근현대사 다큐멘터리로 많은 수상경력이 있었다. 이는 역사다큐멘터리의 한 획을 그을 정도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님은 앞으로도 독립운동 다큐멘터리를 포함한 독립운동관련 영상기록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집, 배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항일영상역사재단 앞 현판에서 이사장님과 찍은 사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기록을 어떻게 보관하고, 유지하고,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역사기록의 중요성과 그런 기록을 보존하고 나아가 활용하려는 이사장님의 의지를 이번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독립정신 고취의 중요성 등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영상콘텐츠를 통해 독립정신과 올바른 역사인식, 그리고 역사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도록 노력하는 이사장님과 재단에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 청년독립군이 간다! _ (3)

주피터 프로젝트와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



성 희 연
청년독립군 대표

작년 한 해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메르스 사태, 그리고 탄저균 사고까지... 특히 탄저균과 관련해서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탄저균 실험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세균샘플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모자라서, 자칫 잘못하면 전 국민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세균무기 실험을 방관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아예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작년 탄저균 택배운송사고로 물의를 빚은 주한미군은 ‘죽은 탄저균인 줄 알았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여론을 잠재운 후, 최근 우리나라의 제2도시인 부산광역시를 첫 공식 주피터 프로젝트 장소로 지정하며 이제는 대놓고 세균무기실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피터 프로젝트란 주한미군의 생화학무기 군사 프로젝트로 합동주한미군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이라는 프로그램의 머리글자 ‘JUPITR’를 따서 주피터 프로젝트라고 불립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치사율 95%의 탄저균을 비롯하여, 1g으로 10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는 보툴리눔 a형 독소 등 다양한 생화학무기들을 실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미군이 실험하고 있는 이 탄저균무기가 바로 일제강점기 가장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731부대에게 넘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미군은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전범인 일본군 중 731부대에게 실험 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그들의 죄를 군사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731부대가 대규모 세균전을 벌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전 후 이시이 시로나 세균무기팀은 모두 전범혐의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시이 시로는 정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미국 워싱턴 외곽에 있는 국립문서보관소, 미국과 731부대 책임자인 이시이 시로와의 충격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문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서는 전쟁 후 미군 정보요원들이 전범재판에서 731부대 책임자들을 보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댓가로 731부대의 전문기술이 미국이 미숙했던 세균무기 프로그램 발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극비 문서는 미국이 세균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기 위해 최고의 세균무기 과학자들(731부대원)을 지원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2010년 3월 아랍권 위성채널인 알자지라 방송이 방영한
영어다큐멘터리 ‘피플앤파워’ 中

주한미군의 생체실험도 결국엔 우리의 미흡했던 역사청산을 결과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대상으로 잔악한 생체실험들을 진행했던 일본군의 실험을 미군이 그대로 이어받아 세균무기 실험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며,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조선총독부 건물 앞에 일장기가 내려가고 성조기가 게양되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저희는 그동안 역사세미나를 하면서 왜 역사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청년독립군이 간다! _ (3)

공부하면서 친일의 역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고 지금까지 그 잔재들이 남아있는 데에 해방 후 미군정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친일파들은 미군정에 기생하여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그들의 권력과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미국에 절대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주한미군사령관을 업고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정말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독립운동 당시 미국은 우리의 좋은 파트너였습니다. OSS와 한국광복군이 합작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고 여러 지원을 해주는 고마운 관계였으나 ‘과연 독립운동가들이 지금과 같은 모습을 원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저희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개봉했던 영화 ‘동주’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요소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운동주의 사촌 송몽규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대답합니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가 빼앗겼기 때문에 분노하고 이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주권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는 바로 ‘자주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주국가가 될 수 있고 평등한 관계위에서 더 공고한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독립군은 한반도 내 세군무기를 실험하는 주피터 프로젝트 반대활동을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의 모습에 더 가까운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뉴스에 보도는 되지만 전면보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모르는 주피터

프로젝트를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1인 시위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동안 첫 공식 주피터 프로젝트 실험장소로 선정된 부산으로 직접 내려가서 부산 시민들에게 주피터 프로젝트를 알리고 함께 힘을 모아 이를 막기 위한 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청년독립군 페이스북 페이지 www.facebook.com/Minjokuniv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202-406-283 (예금주 : 민족문제연구소)

청년독립군 페이스북 페이지에 오시면 청년독립군의 활동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저희 활동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대학생들의 순수 회비로 운영하다보니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이 생기곤 합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선 청년들이 활동에 열심히 임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일제의 요시찰 맹렬 여성 ‘주세죽’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요주의 위험분자 낙인 찍혀
카자흐스탄 허허벌판으로 내 쫓긴 몸
아스라이 멀어져가는
가슴 속 조국이여

경성에서 상해까지
애국동지회 만들어
불철주야 뛰다가

또 다시 먼
이국땅서 붙잡힌 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슬픈 외기러기 되어

홀로 수만리
타국의 하늘을
높이높이 날아보누나

주세죽 (朱世竹, 1899 ~ 1953)

함경남도 함흥이 고향인 주세죽 애국지사는 스무 살 되던 해인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왜경에 잡히는 것을 계기로 1개월간 함흥감옥에서 수감생활을 한 뒤 풀려나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온다. 서울에서 조선여성동우회(朝鮮女性同友會)를 주도하며 여성운동을 이끄는 한편,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產靑年會) 중앙 후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사회주의 운동의 핵심인물로 앞장서는데 일제는 이런 주세죽 애국지사를 ‘여자 사회주의자 중 가장 맹렬한 자’로 보고 ‘요시찰인물’로 감시했다.

1925년 11월 ‘제1차 조선공산당 검거사건’으로 남편 박현영이 왜경에 붙잡힌 뒤 병보석으로 출감한 남편 박현영과 1928년 8월 블라디보스톡으로 탈출했다. 이후 모스크바 동방노력자공산대학을 1931년 졸업한 뒤 1932년부터 1933년까지 중국 상해에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에 참여하던 중, 박현영이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되자 모스크바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소련에서도 주세죽 애국지사는 ‘사회적 위험분자’로 낙인찍혀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당하는 등 박해를 받았다. 당시 소련은 1937년 스탈린의 대숙청이 휘몰아치고 있었는데 연해주에 있던 고려인들은 일제의 밀정이 될 수 있다는 혐의로 모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던 시기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7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영화 <동주>, 식민지 시대와 청년 그리고 시



이 두 희
자유기고가

이준익 감독의 영화 <동주>(2016)는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살았던 시인 윤동주의 삶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예민해진 시기에 개봉한 이 영화는 한 젊은 시인의 생애를 통해서 식민지 시대의 또 다른 초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 영화 속에서 우리는 윤동주 시인의 미처 쓰지 못한 시들과 함께



▲ 영화 <동주> 중에서

과거로 사라져버린 시대의 어긋난 조각들을 다시 발견해 볼 수 있다.

영화 <동주>는 1943년 일본에서 체포되어 수감 중이던 윤동주가 친구 송몽규와 함께 지냈던 만주의 간도 지방에서의 학창시절을 회상하면서 시작한다. 이미 시인을 꿈꾸며 습작을 쓰고 있던 동주는, 신춘문예에 먼저 등단했을 뿐 아니라 타고난 달변은 물론 학업도 뛰어난 친구 몽규를 부러워하지만, 내색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 내성적인 성격이다. 이 후 독립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임시정부로 떠났던 몽규가 돌아오자, 둘은 함께 1938년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하며 상경한다. 서울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문예지 활동을 하며 문학을 공부하고 시를 쓰고 싶었던 그였지만, 중일 전쟁 이후 조선어 수업이 학교에서도 금지되고, 창씨개명과 같은 강제적인 동화정책과 국가총동원령이 확대되며 전운이 감돌던 시대였기에, 동주 역시 자유롭게 시를 이야기할 수는 없었다. 이 후 고향에 내려와 쉬고 있던 동주에게 다시 몽규가 돌아와 일본 유학을 설득하자, 1942년 몽규는 교토제국대학에, 동주는 도쿄의 릿쿄대학에 각각 입학하게 된다. 하지만 자신의 시집을 만들겠다는 이루지 못한 꿈을 간직한 채, 갑작스럽게 치안유지법에 의해 체포되어 심문당하는 동주의 모습을 통해 영화는 그의 삶과 그의 시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전하려 하고 있었다.

영화가 재조명하는 삶은 윤동주 시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독립운동가로서 송몽규 열사 역시 시인의 주변 인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뜨거운 가슴을 안고 살았던 인물로서 함께 그려진다. 그 역시 시인과 함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몇 개월 남겨두고 옥사하고 말았지만, 영화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조





선의 젊은이들이 가졌을 꿈과 희망 그리고 한계와 좌절을 되살리고 있는 것이다.

만약 1905년 을사조약과 1910년 경술국치 한일합방을 직접 겪었던 시대의 인물이라면 나라 잃은 설움을 목 놓아 통곡이라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30여년의 일제 시대 동안 운동주 시인과 같은 많은 젊은이들은 이미 사라진 조선에 태어나 미처 가져보지도 못한 조국에 대한 향수를 품고 살아가야 했다. 일본이 들여온 서구화된 제도와 교육은 그들에게 마치 새로운 기회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은 피식민지 국가로서 핍박과 차별에 먼저 익숙해져야 했을 것이다. 근대화와 수탈이라는 급격한 이중의 사회 변화 속에서 오는 가치의 혼란을 피할 수 없었을 그들은, 점차 다가오는 전쟁이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하루하루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누구보다도 재능 있고 뛰어난 청년들이었기에 운동주와 송몽규에게 주어진 시대는 더욱 거대한 벽처럼 다가왔을 것이다. 예민한 감수성의 운동주가 시를 통해서 고백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처럼, 송몽규가 독립이나 혁명과 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변혁 운동에 뛰어들었던 것은 같은 동전의 다른 양면처럼 보이기도 한다. 결국 영화는 이들 젊음의 초상을 통해서, 민족의 암흑기로서 부끄럽게 여겨지고 잊혀지던 식민지 시대에도, 한계를 넘어 꿈을 꾸고 싶어했던 청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영화 <동주>에는 극영화로서의 영화적 허구의 개입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큐멘터리와 출판물들을 통해 이미 알려진 운동주 시인의 전기적 삶과 비교해서 다른 점들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다. 이를테면 시집의 출판 시도와 관련한 인물들이나 사실 관계 등은 극적인 전개에 맞게 수정되었고, 운동주와 실존 인물이었던 정지용 시인이나 송몽규와의 내밀한 대화



▲ 영화 <동주> 중에서

들 역시 영화의 각본에 그대로 옮겨 담을 방법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극영화의 장점을 살려서 태평양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1941년 이후 일본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한 군국주의적 광기의 분위기를 이야기의 흐름 안에서 담아내려고 하였다. 또한 영화의 후반 윤동주와 송몽규의 심문 장면에서는 대동아전쟁의 형용모습을 드러내고, 전쟁에 반대하는 일본 지식인들의 양심적 모습도 일부 함께 묘사함으로써 분열되어가는 제국주의의 시대상을 더욱 다각적으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사실 보다는 있을 법한 이야기로서 픽션성을 가질 뿐이며, 그 설득력은 영화의 완성도와 관객과의 신뢰로서 우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제작 환경 측면에서 영화 <동주>는 독립영화 수준의 저예산과 어려운 촬영 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영화 홍보의 많은 부분이 배우와 스태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영화의 주제와 성격뿐만이 아니라 제작과 배급 방식에서도 다른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들과 차별성을 가지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관객들의 조용하고 꾸준한 호응을 얻으며 좋은 흥행 성적을 거두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같이 개봉한 위안부 이야기를 다룬 독립영화 <귀향>과 함께, 영화 <동주>는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할 역사에 대한 다양한 접근을 관객들로부터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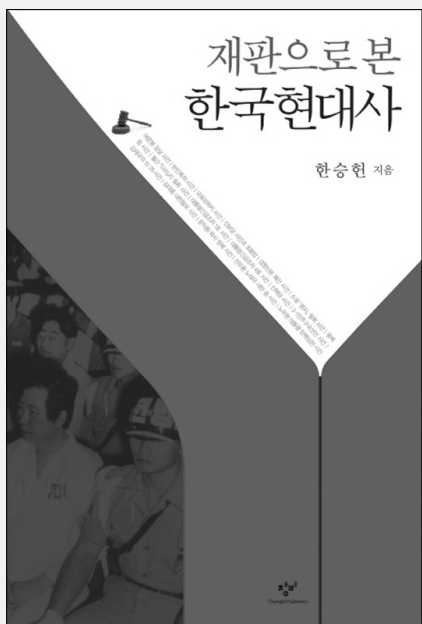




| 임정서가 |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 지은이 | 한승헌 • 출판사 | 창비 • 쪽수 | 472쪽



한국의 정치재판을 해부한다!
시국사건 변호사 한승헌이
보고, 듣고, 기록한 당대사

예나 지금이나 소위 ‘시국사건’이나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대다수 사건들은 당대 법정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갈림길이 되었던 사건들의 법정 공방은 이미 그때부터 한국현대사가 되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오욕과 회한의 역사’이자 피고인의 입장에서 ‘투쟁과 수난의 역사’인 그 사건들의 전모가 이제야 밝혀진다. 그때 그 법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50여 년 동안 시국사건·양심수를 변호한 대표적인 인권변호사이자 전 감사원장 한승헌이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17건의 정치재판을 실황중계한다. 독재정권에 맞서 흔들림 없는 변론을 펼치고, 때론 시국사범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해야 했던 한 변호사는 ‘사법의 민낯’을 제대로 알리고, 우리 국민의 ‘망각 방지’에 일조하고자 펜을 들었다.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를 통해 독자들은 여운형, 조봉암, 김대중 등의 정치지도자부터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법정에 서야 했던 이름 모를 대학생까지, 야만의 시절에 법정에 목숨을 맡겼던 수많은 역사 속 증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한승헌 변호사의 기존 저술들이 본인이 참여한 재판을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는 해방 이후의 중요 정치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역사 서술이라는 새로운 글쓰기를 선보이는 저술이다. 구체적인 정황과 진실을



입증할 만한 각종 문헌자료, 저자 개인의 체험과 견문을 동원해 대한민국 정치재판의 역사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불의로 얼룩진 그때 그 법정 : “재판의 현장에서 나는 분노하고 개탄했다”

“한국의 경찰제는 백화점이 아닌 삼각지 군법회의에서 확립되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서슬 퍼런 군사법정에서 한승헌 변호사는 준엄한 경고를 토해냈다(본문 251면 참조). 검사가 15년형을 구형하면 다음날 군법회의에서 15년형 그대로 선고하는 식의 재판을 비꼰 표현이었다. 학생의 무단결석이나 시험 거부도 사형 또는 징역 5년형에 처해지는 엄혹한 시절이었다. 한 변호사가 “무자비한 폭력을 앞세운 권력 앞에 선 외로운 피고인에게 위로가 되는 우군으로 함께하자, 그리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재판을 후세에 알려야겠다는 신념으로 변호를 했다”라고 했지만, 신념만으로 버티기에는 상대의 폭력이 압도적인 때였다.

당연히 한승헌은 군사정권하에서 탄압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변호사 자격마저 박탈당해 실업자로 내려앉는 등 그가 견뎌내야 할 짐의 무게 역시 가혹했다. 1975년에는 필화 사건이었던 김지하 재판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를 거부하자 곧장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9개월의 형을 살았다. 죄목은 사형 제도를 재검토하자는 취지의 글 「어떤 조사(弔辭)」가 반공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지만, 권력자의 의도는 명백했다. 1980년에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또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그 과정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허위자백과 진실 왜곡을 주문받았음은 물론이다(본문 14장 참조). 정의가 외면 받고 불의가 기승을 부리는 시대에 법조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험난했다. 물론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가 시대를 꺾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부딪치며 깨달은 것은 법조인은 변호활동의 외연을 넓혀서 증언자, 기록자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간 여러 인터뷰와 신문 칼럼을 통해 개별 사건들을 증언했던 한승헌은 이번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에서 대한민국 정치재판의 역사를 한 흐름으로 정리했다. 단순히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우리 현대사를 왜곡시킨 정치재판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펜을 바로잡았다. 그간의 저서들이 본인이 참여한 재판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저작은 해방 이후의 중요 정치재판에 초점을 맞추고 법률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역사 서술이라는



| 임정서가 |

관점을 유지하고자 했다(『프롤로그』 참조). 저자는 오래전에 끝났음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재판’으로 남은 이 사건들을 접한 독자들이 불행한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잊지 말기를 당부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지난날의 상처를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 발전에 제 몫을 다할 수 있는 정도(正道)의 첫걸음으로 삼기를 주문한다.

법정의 산증인, 역사의 증언대에 서다 : 재판 기록으로 재구성한 한국현대사

재판의 현장에서 치밀한 논리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고인의 죄목을 반박하며, 검사 측 증인을 몰아붙이는 변호사로서의 감각은 이 책 곳곳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 그에게 조봉암, 김재규 등의 현대사 인물들은 단순히 역사 속 인물만이 아니라, 정치재판의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피고인이기도 하다. 조봉암의 경우 북의 간첩 박정호와 접촉하고 간첩 양명산에게 돈을 받아 대한민국을 변혁할 목적으로 진보당을 결성했다는 기소 요지부터, 1심 선고 공판에서 간첩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마치 법정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재현해 서술했다(본문 4장 참조). 김재규의 경우에도 그의 행적을 논하기에 앞서 범행 동기에 얽힌 검사와 변호사의 공방을 소개하고, 김재규의 비공개진술 및 최후진술을 소개하는 식이다(본문 13장 참조). 여운형 암살 사건이나 국회 프락치 사건에서도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진범을 밝힐 증거에 대한 공방, 간첩죄의 성립 요건 등을 다루기도 한다. 이렇듯 한 변호사는 공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 및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비롯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주요한 단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이 책에 세세하게 담아냈다. 저자는 이를 재판 중심의 역사 서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황과 진실을 입증할 만한 각종 문헌자료, 저자 개인의 체험과 견문을 동원해 정치재판의 진실과 거짓을 검증해나갔다.

한승헌 변호사가 재구성한 현대사 정치재판 외에 본인이 직접 참여한 사건에서는 법정 풍경이 훨씬 생생하게 전해진다. 특정 사건에서 법정 단상의 제지 발언이 빈번해지고, 경고·휴정·항의소동·퇴정명령 등으로 혼란에 빠지고, 검찰관이 누군가에게 쪽지를 받아보고는 밖으로 들락거리는 모습, 격렬한 논박이 오고가는 법정의 분위기를 실제 옆에서 일어나는 상황처럼 보여준다. 때로는 역사적 평가와 함께 개인적 감회를 부기해 단순한 역사서나 기



록의 의미를 넘어선 읽을거리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민청학련과 인혁당의 연관성을 조작하기 위해 민청학련 사건의 피고인으로 내세운 여정남을 한승헌 변호사는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꽃다운 나이에 소위 ‘인혁당 재건위’ 인물 8인에 포함돼 사형을 당했다는 것 외에도, 그가 변호한 사람 중 유일하게 사형 선고를 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더욱 후회가 되는 것은 변호인인 자신 역시 같은 시기에 반공법 위반으로 묶여 들어가 그와 같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형 집행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다(본문 10장, 11장 참조). 가슴 아픈 한국현대사를 객관적 자료와 재판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도 개인적 경험을 적절히 반영한 흥미로운 읽을거리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방 후 역사적 재판을 다룬 1~5장 이후의 모든 사건은 어떻게든 한승헌 변호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사건들이다. 정치권력과 문학이 정면충돌한 해방 후 첫 필화 사건인 소설 「분지」 사건(본문 6장 참조), 한국 외교사의 가장 잘못된 일로 꼽히는 동백림 사건(본문 7장 참조),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인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본문 17장 참조)의 변호인으로서는 그는 재판의 현장, 그곳에서도 가장 깊숙이 자리해 엄정한 논리를 펼친 변호사였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긴급조치 관련 사건과 필화 사건의 변호를 맡았으며,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여러 단체의 활동에 중요한 증인이자 조사관으로 참여하고, 김대중 납치 사건의 진상규명 때에는 시민단체의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다. 한국현대사 재판의 산증인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그에게 있어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 집권자의 의도에 영합하는 그때 그 재판의 현장에서 한승헌 변호사는 정치재판의 실상과 허상을 간파하고, 시국사건의 진실을 법정 밖 세상에 알리고, 또 미래 세대에도 전해주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책은 그의 오랜 결심이 빚어낸 결과물이다.



| 임정서가 |

냉전 이후

- 역사를 시사로, 시사를 역사로 읽는 김기협 의 남북관계사

• 지은이 | 김기협 • 출판사 | 서해문집 • 쪽수 | 559쪽



역사학자 김기협 의
근현대사 3부작 완결판!
왜, 온 세계가 벗어난
냉전에 한반도만 묶여 있나?

‘ 역사를 시사로 보고 시사를 역사로 읽는 ’ 역사학자 김기협 의 남북관계사. 이로써 《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 》와 《 해방일기 》(전10권)에 이어 지난 100여 년간의 한반도 근현대사를 ‘ 서세동점(西勢東漸) ’의 관점으로 조망해보는 3부작이 완결됐다. 즉 《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 》로 민족국가를 잃어버리는 과정을, 《 해방일기 》로 민족국가 재건에 실패하는 과정을 살펴본 데 이어, 이 책은 세계사적인 ‘ 냉전 종식 ’(1989) 이후에도 여전히 민족문제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 당대 ’의 역사를 살핀다.

저자는 이미 전작인 《 해방일기 》를 통해 분단의 근본적 원인은 내적인 것보다 외적인 데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일본의 패전으로 해방의 기회가 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온전한 민족국가로의 진전이 가로막혔다는 것. 그리고 40년 후 다시 기회가 왔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냉전의 주역이던 미국과 소련 정상이 그해 12월 몰타 회담을 통해 냉전 종식을 함께 선언하였으며, 이어 소련과 공산권이 몰락했다. 냉전이 한민족 분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면 그 종식은 민족통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이뤄주는 것일



터, 하지만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통일은커녕 평화협정조차 맺지 못한 채 남북한의 적대관계는 지속되고 있다(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관계 발전과 비교가 되지 않는 초라한 상태이다). 게다가 최근에는 개성공단마저 폐기될 위험에 처할 정도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온 세계가 벗어난 냉전에 한반도만 묶여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강요하는 외세가 없는데도, 우리 민족이 분단 상태를 좋아해서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다는 말인가? 이 책은 그러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냉전이란 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현상이었고 그 종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미국의 패권과 중국의 흥기가 21세기 한반도에 어떤 상황을 형성하고 있는지, 남한과 북한의 집권세력은 민족문제 해결에 어떤 자세로 임해온 것인지를 풍부한 문헌 고찰과 예리한 통찰, 과감한 해석으로 담아내고 있다.

‘냉전 이후의 냉전’과 잃어버린 15년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한부터 국가다운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이제 한반도 냉전 구조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시적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저자는 우리가 말하는 1980년대 말의 ‘냉전 종식’은 동유럽의 냉전 종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한다. 동유럽의 전선이 사라진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서의 전선은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 즉 1989년의 ‘냉전 종식’은 냉전시대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계기가 아니라,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문제들이 새로운 형태로 모습을 바꿔 나타나게 되는 계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비로소 미국 패권의 성격 변화와 중국 흥기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온전한 세계 인식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가 정치학자에게 중요하듯이, 이제 역사학자인 저자에게는 ‘냉전 이후의 냉전’ 현상을 인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1990년대에 주목하며 그 10년간에 현미경을 들이댄다. 1989년 ‘냉전 종식’ 이후 노태우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과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거쳐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제 역사의 소재와 사건과 배경이 된다. 특히 ‘핵무기 없는 핵 카드’로 시작된 북한의 핵 위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 증폭되어 왔는지,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남북한의 집권세력들이 각기 어떻게 대응해왔는지를 국내외 수많은 문헌들을 통해 흥미롭게 재구성해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 임정서가 |

저자는 민족사회의 회복이라는 대세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도처에서 발견하게 된다(그리고 그 장애물은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의 남북관계 전개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뒤얹혀 나타나지만, ‘서세동점’이라는 기반조건이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자는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100년 전의 망국 단계에서나 50년 전의 해방 단계와 다른 점은, ‘서세’가 남한 사회에 깊숙이 내면화되어 있다는 것. 즉 남한 사회 내에 ‘외세’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100년 전이나 50년 전에 비해 민족사회의 의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퇴화되어 있는 것은 이 ‘내부의 외세’ 때문이다.

그러면서 저자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한반도의 분단 상태를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북한보다 남한 쪽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남한에서 정치다운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유효기간을 넘겨버린 자본주의에 묶여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남한이 국가다운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은 대한민국 역사상 이례적으로 ‘주권국가’의 역할에 접근한 경험이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전망에서 더 나아간 것이 없다. 지난 15년간은 남북관계에서 ‘잃어버린 세월’ 일 뿐이다. 그때까지 북한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들이 되풀이되었을 뿐, 구조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보여준 주권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가능성이 한반도의 ‘냉전 이후’에 대해 이제껏 보여왔던 최대치의 전망이었을 뿐이다.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 담벼락에 묻힌 5월 광주

• 지은이 | 문선희 • 출판사 | 난다 • 쪽수 | 175쪽



1980년 5월 광주, 그날의 기억을 묻다. 2016년 5월 광주, 그날의 기억은 이렇게도 묻을 수가 없다.....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 또다시 5월입니다. 5월이라 하면 이런저런 기념의 날 참 많기도 하하지요.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어버이날을 지내고 스승의 날을 거쳐 성년의 날을 보낸 뒤 그 언저리에서 며칠을 더 머물면 애도의 심정으로 달력 속 숫자 하나에 오래 시선을 두게도 된다고요. 18이라는 숫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라는 붉은 글씨. 잊지 말라는 나름의 당부가 그 붉음이라 하겠지요. 그날로부터 36년이 흘렀습니다. 직접 겪은 이가 아니고서는 그때 그날들의 특별한 그 ‘겪음’에 대해 감히 안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저 짹짹 흘러가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터, 여기 한 사람의 젊은 사진작가가 그날의 기억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들어감을 신고해드리려 합니다. 1978년생으로 사진작가이자 에세이스트인 문선희. 광주 출신으로 무등산 자락에서 자란 그녀는 1980년에 18개월 된 아기였고, 홍역에 걸려 있었음에도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지 못해 죽을 고비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스스로 떠올린 기억이 아니라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언니와 오빠들의 기억이 불러일으킨 사실이었다지요. 바로 이 부분을 힌트로 문선희 작가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월 광주에 관한 작업이되 정치적이거나 역사적인 거대 담론에 의거한 ‘중심’이 아닌, ‘주변’의 기억을 수집하기로 한 거지요. “특히 내가 어린이들에게 주목한 이유는 그들은 현장에 있었지만 누구도 도덕적인 책임을



| 임정서가 |

물을 수 없는 존재라는 점 때문이었다. 그들의 증언 속에는 당시 시민들의 용기와 희생 같은 숭고한 꽃들뿐만 아니라 혼란, 불안, 공포, 분노 같은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들까지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나는 증언 사이사이에 묻어난 그들의 철없는 아이다움에 한량없이 고마웠고, 그들의 이상하고 섬뜩한 어린 날의 파편에 속절없이 아파했다.”-서문에서 문선희 작가는 2년에 걸쳐 당시 초등학교생이던 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80명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고, 그들이 직접 겪은 그 일에 대한 증언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작가는 그들이 살았던 골목골목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다행히 사라진 집들만큼이나 남아 있는 집들도 꽤 되었습니다. “그 엄혹한 열흘 밤낮 동안 누군가의 가족을 오롯이 품었을 집들, 오랜 시간을 견뎌내 저마다의 고유한 역사를 지닌 벽들.” 이제는 사십대가 된 당시 초등학교생들의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비슷비슷한 듯해도 사사로이 다른데, 어린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의 불완전성은 “사건을 미화하거나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하게 그 부조리함을 대변하기 때문”에 보다 귀한 사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다음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말이지요. “그때 YMCA 근처에 수협이 있었고, 그 앞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총알자국이야’라고. -김보수(1980년, 11세) “그리고 아침에 형이 세수를 하는데 갑자기 ‘뽕’ 소리가 났어요. 보니까 밖에서 날아든 총알이 벽에 박혀 있었어요. 형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망정이지 고개를 들고 있었으면 형 머리에 맞을 뻔했어요.”-김용선(1980년, 12세) “그 길 사거리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따다다, 하고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옆에 가던 형이 쓰러졌어요. 나는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후퇴를 했고요. 총을 맞은 형은 그 자리에서 특, 쓰러져 죽었어요. 죽은 형은 총을 머리에 맞았는데, 얼굴 절반은 형태가 없었어요. 그 바로 옆에 제가 있었고요.”-최창호(1980년, 9세) “날이 더운데 할머니가 어디선가 숨이 불을 해오셨어요. 총알이 숨이불을 못 뚫는다고요. 옛날 집들은 담이 낮아서 총알이 집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김이강(1980년, 12세) “공수부대는 개구리복을 입고 다니면서 학생들을 무조건 잡아갔어요. 대학생들이 주택가로 숨으면 무조건 찾아내서 질질 끌고 갔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공수부대원들은 돌도 안 피하고, 화염병도 안 피하더라고요.”-서상석(1980년, 12세) “그때는 어렸으니까, 탱크나 장갑차가 지나가도 아스팔트 바닥이 깨지지 않는 걸 보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요.”-문영학(1980년, 12세) “우리한테 빨갱이라고 하니까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공산당은 머리에 뿔이 났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빨갱이라니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됐어요.”-강혜련(1980년, 13세) “우리 동네에 최미현이라고 나를 엄청 귀여워해주시던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인성고 교사였고,

| 임정서가 |



그때 미현이 누나가 스물일곱인가 여덟인가 됐었는데 임신 중이었어요. 남편을 기다린다고 밖에 나갔다가 총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손수레에 누나를 실어서 집안으로 들어오고 식구들이 울고불고 하던 기억이 생생해요. 나중에 5·18 묘역에 가니까 미현이 누나 묘가 있더라고요.”-김동훈(1980년, 11세) 『묻고, 묻지 못하는 이야기』, 이 책의 탄생에는 “역사 저편으로 잊혀가는 기억의 조각을 발굴하기 위해 좁은 골목들을 찾아다닌” 문선희 작가의 노고와 사랑에 힘입은 바도 크지만, ‘말함의 불가능성’을 품은 채 최대한 정확히 그날의 기억을 되살리려한 ‘80명 아해들’의 용기도 큰 몫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들 모두 ‘동일한 사건의 목격자’임은 분명한 까닭에 그들의 목소리 가운데 교집합으로 묶이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은 필시 사실 너머 진실로 역사의 한 페이지에 바로 새겨줘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80년 5월 광주의 새로운 오감도로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탄신 130주년 기념, 몽양 여운형의 날



5월 21일(토)에 몽양여운형생가·기념관(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에서는 몽양 선생의 탄신 130주년 기념하며 몽양 여운형의 날이 개최되었다.

장원석 학예사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이부영 회장의 인사말과 김정행 대한체육회 회장의 축사, 박유철 광복회 회장의 축사 그리고 여운형 선생 약력 소개와 유족대표로 여운홍 전의원의 손자인 여인영 대중기계(주) 회장이 인사를 했다.

이어서 축하공연에는 이지상 성공회대 교수의 진행으로 양평청소년 예술단의 노래와 이지상, 요술당나귀, 임정득, 20사단 군악대 등이 나서 화려한 음악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민족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친 여운형 선생의 정신을 기리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봉오동전투 전승 제96주년 기념 국민대회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이사장 이종찬)가 주최한 ‘봉오동전투 전승 제96주년 기념 국민대회’가 6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기념사업회 이종찬 이사장 등 보훈 관계자, 해군장병, 시민 300명이 참석해 여천(汝千) 홍범도(洪範圖)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기렸다.

이날 행사에는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우리 해군의 잠수함 ‘홍범도함’ 승조원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1920년 6월 7일은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크게 무찌른 봉오동(鳳梧洞) 전투가 벌어진 역사적인 날이다. 봉오동전투는 홍범도 장군과 최진동 장군이 지휘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골 저수지 북쪽 10km 지점에서 현대무기로 무장한 일본군 1개 대대를 토살한 전투이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심포지엄



서울시 강북구는 항일 투쟁과 사월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전파하기 위해 지난 5월 17일에 근현대사기념관을 개관하였다. 이에 6월 2일 근현대사기념관 개관 기념으로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 심포지엄이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독립정신과 민주공화주의 고양’이라는 근현대사기념관의 건립 취지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요체인 자유·평등·민주 이념의 연원이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에 있음을 부각시키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이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초기 독립운동과 민주공화주의의 태동(김정인 춘천교대 사회과교육과 교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념적 지향(이준식 근현대사기념관장) △제헌헌법에 나타난 평등권의 역사적 연원(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발표 후에는 윤경로 한성대 전 총장을 좌장으로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이나미 한국방송통신대 연구교수가 종합토론을 진행하였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백범김구선생 제67주기 추모식



백범 김구 선생 67주기 추모식이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추모식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독립유공단체장,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태어난 김구 선생은 자주독립을 위한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을 벌였으며, 1919년 3·1 운동 이후에는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냈다. 광복 이후 반탁운동, 남북연석회의 참가 등으로 통일된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힘쓰던 중 1949년 6월 26일 서울 경교장에서 암살됐다. 정부는 김구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해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천금과 같은 기부금을 받았습니다.

서울증산초등학교 6학년4반(담임 정휘범 선생님) 친구들이 손 글씨 편지와 함께 20만7천550원을 보내왔습니다.

이 기부금은 6학년4반 어린이들이 음식을 만들고, 그 음식을 친구들이 사먹는 '음식 만들기 행사'를 통해 조성한 수입금이라고 합니다. 증산초 6-4반 친구들이 보낸 편지에는 수입금을 본회에 보내게 된 경위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사회시간에 임시정부에 대해 배웠는데, 마침 선생님께서 임시정부 기념관을 짓는 일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돈이 많지는 않지만 기념관을 짓는 좋은 일에 써주시길 바랍니다.” “행사도 재미있었고, 저희가 모은 기부금이 좋은 곳에 쓰인다고 생각 하니 기쁘고 뿌듯해요.”

편지에는 어린이들의 해맑은 사진이 동봉되어있었습니다. 3.1운동 백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백주년이 되는 2019년. 이 사진은 2019년에 백주년 조형물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이 반드시 건립될 것임을 예고하는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서울증산초등학교 6학년4반 친구들과 정휘범 담임 선생님께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회원 부고 소식〉

2016년 5월 16일. 석 규 관 선생 별세

2016년 6월 28일. 채 의 진 선생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6년 5월, 6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회원명	5월	6월
강만길		10,000	박용규	10,000	10,000	이재선	5,000	5,000
강재욱	20,000	20,000	박유진	10,000	10,000	이종찬	100,000	10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창윤	10,000	1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재민	10,000	10,000	이 철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학노	20,000	20,000
권오영	10,000		박제선	30,000	30,000	이학호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배다지	10,000	10,000	이해준	10,000	10,000
김광재	5,000	5,000	배석준	5,000	5,000	이현진	10,000	10,000
김동현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동근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화순	30,000	30,000
김봉현	30,000	30,000	빙인섭	30,000	30,000	이후삼	10,000	10,000
김빛나	10,000	10,000	서동희	5,000	5,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삼웅	20,000	20,000	서봉수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김선균	10,000	10,000	서흥관	30,000	30,000	장두영	10,000	10,000
김성곤	10,000	10,000	석혜진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성록	10,000		신경숙	10,000	10,000	장상록	10,000	10,000
김성배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채령	10,000	
김숙정	50,000	50,000	신영연	10,000		전영복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신희범	10,000	10,000	정관훈	100,000	100,000
김영일	10,000	10,000	심봉용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용수	5,000	5,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안재웅	10,000	10,000	정지완	5,000	5,000
김윤수	30,000	30,000	안호진		10,000	정철승		30,000
김윤영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조기식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염기남	10,000	1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정록	70,000	70,000	오상균	10,000	10,000	조영빈	5,000	
김정인	20,000	20,000	오정섭	10,000	10,000	조용욱	10,000	10,000
김종규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종성	10,000	10,000	우상호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종숙	10,000	10,000	유덕곤	10,000	10,000	조회환	20,000	20,000
김진모	20,000	20,000	윤경자	40,000	4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진영	10,000	10,000	윤종순	5,000	5,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윤종준		10,000	천정배	10,000	
김판수	5,000	5,000	윤철호	100,000	100,000	최권행	30,000	30,000
김학근	20,000	20,000	윤희옥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홍수	10,000	1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희주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기자	10,000	10,000	한익석	10,000	10,000
남만우	50,000	50,000	이동진	20,000	20,000	함세웅	30,000	30,000
노수문	20,000	20,000	이두엽		50,000	홍용희	10,000	1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두희	30,000	30,000	황명하		30,000
노영택		10,000	이범중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상준	100,000	100,000	황인자	30,000	30,000
류동연	20,000	20,000	이상훈	10,000	10,000			
류한수	15,000	15,000	이양순	20,000	20,000	2016년 5월, 6월 특별회비		
민영백		100,000	이영국	10,000	10,000	회원명	5월	6월
민항선	30,000	30,000	이영숙	10,000	10,000	(주)오토 오티오	5,000,000	5,000,000
박녹삼	10,000	10,000	이우재	10,000	10,000	(주)아팩철강	3,000,000	8,000,000
박덕진	10,000	10,000	이윤옥	20,000	20,000	김태영	5,000,000	
박동기	10,000	10,000	이응국	5,000	5,000	배양숙		1,000,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인석	10,000	10,000	신윤경	500,000	1,500,000
박아영		10,000	이일선	20,000	20,000			



(우)100-101 서울·중구 세종대로21길 49(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TEL (02) 3210-0411, 3210~0422 FAX (02) 732-2870
 E-mail kpg1919@korea.com http://www.kopogo.com

◆ 입 회 원 서 ◆

이 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 택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 소			
직 업		소 속	
비 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 행 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